

아프리카돼지열병 바로알기 Q&A



Q 아프리카돼지열병(African Swine Fever, ASF)이란?

A 돼지과(Suidae)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입니다.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며, 치사율이 최고 100%에 이릅니다.

Q ASF 병원체는?

A Asfivirus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로, 외부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안정적인 DNA 바이러스의 특성상 특이적인 유전자 변이가 보고된 바 없으며, 돼지과 이외의 이종 간 전파사례*도 없었습니다.

* 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Food Safety Focus(2019)

Q 사람에게도 전염되나요?

A ASF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므로,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고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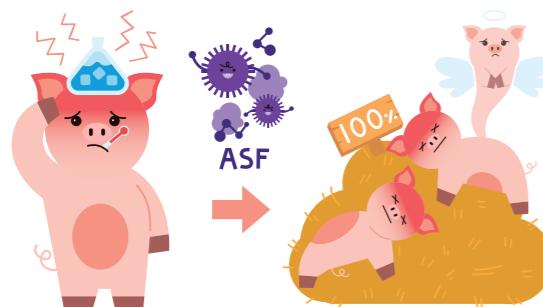
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나 해외정부(미국·EU 등)에서도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. 또한, 지난 100여 년간 세계 50여 개국에서 발생했음에도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.

* 출처 :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(육상동물위생규약)



Q 어떻게 전파되나요?

A 주로 ASF에 감염된 돼지, 야생 멧돼지 또는 침, 분변 등 분비물, 혈액 등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됩니다. 또한, 돼지가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 등이 포함된 남은 음식물 사료를 섭취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

Q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?

A ASF는 사람이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됩니다.

또한, ASF 바이러스는 70°C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, 구이(190~220°C)·찌개(100°C 이상) 등과 같이 평소처럼 충분히 익혀 드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.

Q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수도 있나요?

A ASF 발생농가의 돼지는 감염된 돼지를 포함하여 모두 살처분·매몰 처리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며, 유통 전 모든 돼지는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합격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유통됩니다.

Q 일반국민의 행동요령은?

1 중국, 베트남, 몽골 등 ASF 발생국가를 확인하고, 해당 국가 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2 해외에서 구입한 육류, 햄, 소시지 등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되며, 실수로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신 경우에는 공항·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불법 축산물 반입 미신고 시,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



3 야생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하신 경우 관할 시군 환경부서 및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